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황성필 요한, 성인영 마리스텔라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정진우 아우구스티노, 우명희 카타리나	봉헌금 : \$131
금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교무금: \$200
다음 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캠프관련: \$750
금주 미사해설: 윤보연 소화대레사	합계 : \$1081
다음주 미사해설: 최고은 소피아	봉헌봉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김지원 카린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다음주 봉헌봉사:
친교실 정리: 1 구역	윤보연 소화대레사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리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7월 13일)
성모회 금요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월 첫주 금요일(장소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7월 21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7월 20일)
† 공지사항	
1. 여름 캠프 관련 사진을 성당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보시고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2. 여름 캠프 참가비를 납부해 주세요. 회계 담당 심윤필 형제님/김정기 형제님에게 주시면 됩니다. 3. 정착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목 위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4. 7월 독서, 간식 및 청소 담당은 1 구역입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오늘의 묵상	
사람들은 병이 들면 ‘내가 평소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가?’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중풍 병자도 자신은 하느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중풍 병자는 목숨은 살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풍 병자를 평상에 누여 당신 앞으로 데려오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느님과 끊어진 끈이 다시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풍 병자를 용서해 주시며 그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중풍 병자는 용서를 통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풍 병자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를 그의 어깨에서 벗겨 주셨습니다. 죄의식으로 족쇄에 묶여 있던 병자를 자유롭게 해 주신 것입니다. 중풍은 혈관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몸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앞이 짝 막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면 그분께서는 우리 인생의 막힌 곳을 뚫어 주십니다. 우리는 악하고 불완전하여 죄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짓눌려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자유롭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로
(608) 628-7977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c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7월 7일

<제 1 독서>아모스 예언서 7,10-17

<제 2 독서>로마서 5, 1-5

화답송	◎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 ○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 ○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9,1-8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오르시어 호수를 건너, 당신께서 사시는 고을로 가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중풍 병자를 평상에 누여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날날이 전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287 봉헌: 219 성체: 151 파견: 286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편지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만물을 지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까닭[爲者]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시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있더라도 쓸데없습시다.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입교한 효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어찌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겠습니까.

발에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춰 밭을 갈고 거름을 주며, 더위에도 몸의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고 아름다운 씨를 가꿉니다. 밭 거둘 때에 이르러서 곡식이 잘 되고 여물면, 땀 흘린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기뻐합니다. 곡식이 여물지 아니하고 밭거둘 때에 빈 대와 껌질만 있다면, 주인은 땀 흘린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시간[工夫] 때문에 그 밭을 박대합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을 벼로 삼으며,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여, 피로 우리를 물 주시어 자라고 여물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주님의 은혜를 받아 여문 사람이 되었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義子]로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물지 못하였으면 주님과 의로써 맺어진 아들이라 하더라도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알아둡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내려와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운다 한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승천 후 사도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두루 무수한 어려움 중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에 교회가 들어온 지 오륙십여 년 동안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교우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시다. 또 오늘날 박해가 불길같이 일어나 여러 교우들과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여러분까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인간적인 정[肉情] 때문에 차마 이별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했고, ‘모르심이 없이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어찌 이렇듯 한 박해가 주께서 하고자 하신 일[主命] 아니면, 주님의 상[主賞]이나 주님의 벌[主罰]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聖意]을 따르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편을 들어, 이미 항복받은 세속과 마귀를 공격합니다.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는[遑遑] 이런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해서, 마지 용맹한 군사가 무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있음과 같이 하여, 우리도 싸워 이겨냅시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도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을 거두시기까지 기다립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爲主光榮],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해갑시다.

여기 감옥에 있는 20 인은 아직 주님의 은총[主恩]으로 잘 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아주십시오.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편지글[紙筆]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 그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전장(戰場)에 나가갈 터이니 부디 공을 착실히 닦아, 천국에서 만남시다.

마음으로 사랑해서 잊지 못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만나 부디 마음을 허실(虛失)하게 먹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의 도우심[主佑]을 빌어,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세 원수[三仇]를 대적하십시오. 박해를 참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큰 일[靈魂大事]을 경영하십시오. 이런 박해 때는 주님의 시험을 받아서, 세속과 마귀를 물리쳐서 덕행과 공로[德功]를 크게 세울 때입니다. 부디 환난에 놀라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고 영혼을 구하는 일’[事主救靈事]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난날 성인성녀들의 자취를 단단히 닦고 실천하여[萬萬修治], 성스러운 교회[聖教會]의 영광을 더하십시오. 하느님의 착실한 군사이며 의로써 맺어진 아들이 됨을 증언하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가련히 여기실[矜憐] 때를 기다리십시오. 할 말은 무수하지만, 있는 곳이 타당치 못하여 더 적지 못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을 여러분의 입에 대어 사랑으로 입 맞춥니다[親口]. 부주교[副監] 김 안드레아.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莫非主命],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이 아닌 것은 없습시다[莫非主賞罰]. 그러므로 이런 박해도 또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니, 여러분은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고, 오직 주님께 슬피 빌어서 빨리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적 정과 영혼을 위한 큰일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 오래지 아니하여 나와 비교하여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주실 것이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번 만번 바랍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김 신부가 사사로운 마음으로(私情), 정을 표해 드립니다(情表).

남은 말

조광 이나시오/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누구나 유서를 작성할 때는 비장한 마음을 갖는다. 김대건 신부도 죽음을 앞두고 조선의 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유서를 남겼다. 이 글의 형식을 분석해 보면, 김대건은 감옥에서 틈틈이 이 글을 써나갔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감옥에서 짬을 내어 일단 끝맺음한 편지에 다시 말을 덧붙여 살아남을 신자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했다.

그는 우선 “천국에서 만남시다.”라는 말로 자신의 편지를 맺고자 했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마음으로 사랑해서 잊지 못할 신자 여러분”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랑을 계속 전해 나갔다. 또한 김대건 신부는 자신이 조선교구의 교구장이었던 페레올 주교를 도와 사목하던 ‘부주교’임을 이 편지에서 밝히며 끝을 맺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편지는 여기에서 그칠 수 없었다. 그는 한 번 더 신자들에게 자신의 애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김대건은 감옥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이만큼 정성을 들여 신자들에게 글을 남겼다. 김대건이 신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권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매진해 나가기를 당부했다.

자신을 잃고 서러워할 신자들에게 하느님께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목자를 상으로 주시리라 말하며 신자들을 위로했다. 그는 죽음에 임하여 자신의 뒤를 이을 최양업과 같은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복음화의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자들에게 ‘큰 사랑을 이루어, 한몸같이 주를 섬기다가 하느님의 면전 앞에서 다시 만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이다지도 신자들을 사랑했던 김대건 신부가 오늘날 이땅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는 신자들에게 공손한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리라 생각한다.